

광양시 CCTV 관제요원, 광양경찰서장 표창 수상

CCTV 통합관제센터 1,623대 연계 관제로 범죄 검거·안전도시 구현 앞장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관제 업무를 통해 범죄 검거와 재난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양경찰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관제요원들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털이범을 신속히 특정·검거하고, 화재 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여됐으며, 총 3명의 관제요원이 표창을 받았다.

광양시 중마동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기반으로 범죄 예방과 사건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찰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초동 대응

과 수사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2025년 신규 설치된 CCTV 128대와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설치한 CCTV 255대를 연계해 총 1,623대의 CCTV를 통합 연계·관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용의자 이동 경로 추적과 증거 영상 확보 등 수사 전방을 지원하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김경순 관제요원은 “관제요원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으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관제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



터는 각종 범죄와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표창은 관제요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촘촘한 관제망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제11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담은 민·관 협력체계 출범

담양군은 지난 27일 제11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시설·기관 대표, 사회보장 관련 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특화사업 논의 등 지역사회보장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026년은 제6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담양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

는 계획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훈 위원장은 “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가 민·관을 잇는 협력의 중심으로서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고독사 위험 가구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 ‘치매돌봄택시’ 운영, 어르신 이동권 보장

관내 개인택시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2월부터 시범 운영 시작

강진군보건소(강진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7일 치매환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개인택시사업자 5명과 ‘치매돌봄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돌봄택시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 치매정밀검진을 받고자 할 때, 자택에서 센터까지 무료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업은 오는 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를 점검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 시간 및 예약된 정밀검진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 및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치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

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치매돌봄택시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430-5294-5299) 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함평군 보건소, ‘마음치유 in 함평’ 운영

지역 치유자원 활용 맞춤형 힐링 서비스 제공

전남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내 치유자원을 활용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치유 in 함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치유 in 함평’은 지난 15일 신관평을 시작으로 매월 2회, 회당 14명 내외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모악산치유센터·함평돌머리해수점치유센터 등 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축정 ▲온열테라피 ▲피부·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맞춤형 힐링 서비스와 ▲푸드테라피 ▲도자기공예 등 감성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도자기 공예를 하며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며 “맞춤형 힐링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마음치유 in 함평 프로그램은 지역 기반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치유·체험을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나주시 빚가람동지사협, 경로당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

4개 경로당서 실습 중심 교육, 응급 대응 능력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 빚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귀남·황덕연, 이하 빚가람동지사협)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2월까지 LH1단지 경로당 등 빚가람동 4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법,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를 따르면 전체 급성심정지 환자 중 70세 이상의 발생이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2.4배 증가하고 뇌 기능 회복률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빚가람동지사협에서는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나주소방서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2월까지 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다. 김귀남·황덕연 공동위원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

로당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다”며 “빚가람동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